

KIA 육성 시스템 재편 새끼 호랑이 키운다

3군 없애고 투타아카데미 잔류군 세분화 선진야구 경험 코치 유망주 맨투맨 교육 기본기·인성 초점...포지션별 선수 육성

KIA 타이거즈 선수단 운영이 '확' 달라진다. 기존에 운영되던 3군이 없어지고 투수·야수·잔류조로 세분화된다. 투·타 아카데미를 진행해 유망주 선수들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잔류조는 기존 3군처럼 경기를 하는 등 선수 자체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조계현 KIA 단장은 11일 "올해 2군을 어린 선수들 위주로 운영했는데 선수들 반응도 매우 좋았고 퓨처스 경기에

꾸준하게 출전하면서 선수들도 눈에 띄게 기량이 성장했다"며 "이에 내년에는 선수 육성을 보다 체계화한다. 투타 아카데미를 통해 선수들을 맨투맨으로 지도하고 기본기와 인성을 키우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선수 육성은 조 단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부분으로 함평 챌린저스 필드 건립 이후 선수 자체 육성에 공을 들이려온 시스템을 정비, 본격적인 유망주 키우



KIA 타이거즈가 투타아카데미를 신설하며 보다 체계화된 유망주 육성에 돌입한다. 사진은 함평 기아 챌린저스 필드.

/KIA 타이거즈 제공

기에 나선다.

이번 시즌 KIA는 유망주 선수로만 2군 선수단을 꾸려서 퓨처스리그에 출전시켰고, 1군과 2군을 오가는 베테랑 백업 선수는 따로 3군으로 편성해 대학팀과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유지했

다. 하지만 내년에는 3군 운영 자체가 달라진다.

평소 타 구단에 비해 많은 인원의 선수단을 운영했던 KIA는 우안 김진우(35)를 비롯해 1군에서 뛰지 못하는 베테랑 선수를 대거 정리하는 등 선수 수

자를 줄였다. 적정 인원을 유지하면서 어린 선수들을 키우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먼저 투·타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각 포지션별 필요 선수를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코칭스태프를 구성중이다.

조 단장은 "요즘 선수들은 체격 조건이 좋다. 이미 스카우터들이 체격조건을 우선순위로 해서 뽑기 때문에 기본기를 익히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스태프를 구성중인데 분야별 코치가 선수들을 맨투맨으로 지도한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선수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 선진야구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 선진야구 경험이 많은 코치로부터 기본기를 익히게 되면 어린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체격 조건이 좋은 유망주 선수들이 기본기를 닦게 되면 성장속도가 더 빨라지고 프로에서도 통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 단장은 "내년 9월이면 챌린저스 필드 조명시설건립과 야구장 증축이 완료되는 등 인프라도 업그레이드 된다"며 "선수 육성을 강화하는 만큼 내년에는 저도 함평에 머무는 기간이 많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11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FINA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200m 개인 혼영에서 일본 후지모리 히로마사가 역영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축구협회 연령별 대표팀·유소년 전임 지도자 모집

대한축구협회가 연령별 대표팀과 유소년 선수들의 기술 발전을 도울 전임 지도자 모집에 나섰다.

축구협회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임 지도자 모집 공고를 냈다.

모집 분야는 연령별 대표팀 피지컬 트레이너, 스포츠사이언티스트, 재활 트레이너와 유소년 부문의 필드·골키퍼 코치다.

연령별 대표팀 선수들의 체력 훈련을 담당할 피지컬 코치와 피지컬 코

치를 도와 체력 훈련을 진행할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는 1명씩 모집한다.

자격 요건은 체육 분야 석사 이상 학력자로 피지컬 코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C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 또는 국내외 축구협회의 피지컬 코치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모집 참가 희망자는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지원팀(031-940-3330)이나 유소년전략팀(031-940-3368)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 어등초등학교가 2018 한국도로공사·KOVO컵 유소년배구대회 고학년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어등초 KOVO 유소년배구대회 우승

고학년 여자부 정상...도솔초 남자부 1위

대전 도솔초등학교, 광주 어등초등학교, 대구 수성초등학교가 경북 김천에서 열린 2018 한국도로공사·KOVO(한국배구연맹)컵 유소년배구대회에서 우승했다.

도솔초는 고학년 남자부, 어등초는 고학년 여자부 정상에 각각

올랐다. 수성초는 중학년부(3~4학년)에서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11일 배구연맹에 따르면, 작년보다 200명 늘어난 46개 팀의 820명의 학생과 지도자가 올해 유소년 배구대회에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연합뉴스

'FA 최대어' 양의지 125억에 NC맨

이대호 150억 이은 역대 2위 100억 이상 계약 포수 최초

'당대 최고 포수'로 꼽히는 양의지(31)가 포수 최고액이자, 역대 두 번째 초대형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끌어내며 NC 다이노스로 이적했다.

NC는 11일 "양의지와 4년 125억원에 계약했다. 계약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으로, 계약금 60억원, 총연봉 65억원이다"라고 밝혔다.

125억원의 이대호가 2017년 롯데와 계약할 때 기록한 150억원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FA 계약이다.

양의지는 올 시즌을 앞두고 강민호가 삼성 라이온즈와 계약할 때 작성한 4년 80억원을 넘어서는 '포수 최고액 계약'의 주인공이 됐다.

이동욱 NC 감독은 "포수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면서 공격력도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문 NC 단장은 "왕권 새 야구장 시대에 맞춰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의 관심에 화답하는 길은 선수단에 과감히



투자해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다 이노스가 내년 가을야구에 다시 도전하며 강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양의지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을 선택하게 됐다.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회를 주신 NC 구단에 고맙다"며 "또한,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두산 구단과 김태형 감독님, 동료 선수들, 그리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의지는 FA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최대어'로 꼽혔다.

그는 2006년 2차 8라운드 59순위로 두산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한 양의지는 군 생활을 마친 뒤 2010년부터 두산 주전 포수로 뛰었다.

기량은 점점 상승했고, 박경완(SK 와이번스 코치) 은퇴 후 군용활구 구도

였던 한국프로야구 포수 대결은 '양의지의 완승'으로 굳어졌다.

양의지는 공수를 겸비한 '당대 최고의 포수'다.

양의지는 올해 정규시즌에서 타율 0.358로 이 부문 2위에 올랐다. 23홈런을 질 정도로 장타력도 갖췄다.

양의지는 도루 저지에서도 0.378로 1위를 차지했다. 수치화하기 어렵지만, 투수 리드에서도 최고로 평가받는다.

10일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도 양의지는 최다 득표(유효표 349표 중 331표, 94.8%)를 달성하며 황금장갑을 손에 넣었다.

'포수란'은 KBO리그 전체의 문제다. 모든 구단이 양의지를 영입하면 4년 동안은 포수 걱정 없이 팀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

포수 김태균의 입대로 고전했던 NC는 안방을 안정화하고, 공격력까지 강화할 최상의 방법으로 양의지 영입을 택했다.

원소속구단 두산도 양의지와 협상 테이블을 차렸으나, NC의 간절함이 더 컸다. /연합뉴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스키 캠프

12~14일 평창알펜시아스키장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2018 광주 장애인생활체육 장애청소년 '에스아이캔(Yes I Can) 스키 캠프'를 개최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달부터 동계 스포츠 체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스키, 컬링, 빙상 등의 동계 생활체육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실을 운영해왔다. 이번 스키캠프는 11월 22일부터 3회에 걸쳐서 포시즌 실내스키장(동구 소재)에서 기초과정을 수료한 장애청소년 12명을 비롯한 보호자 및 지도자 등 2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캠프 참여 장애청소년들은 실내스키장에서 배운 기본동작을 바탕으로 실제 슬로프에서 방향 바꾸기, 멈추기, V자 오르기 등의 기초과정과 활강하며 방향을 전환하는 중급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신영용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스키캠프를 통해 인내심과 기초체력을 기르는 체력적 측면과 다른 사람들과의 단체생활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동계 생활체육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이치로 내년에도 메이저리거

"시애틀과 연내 계약...조율 중"

잠시 방망이를 내려놓고 구단 직원으로 일해 온 일본인 '타격 기계' 스즈키 이치로(45)가 내년에는 다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거 선수로 뛸 전망이다.

스프츠호치 등 일본 매체는 11일 이치로의 에이전트인 존 보그스의 말을 인용해 이치로가 현 소속팀 시애틀 매리너스와 올해가 가기 전 메이저리거 계약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그스는 지난 10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한 메이저리거 윈터 미팅에 참석 중이다. 윈터 미팅은 메이저리거 구단 관계자와 에이전트가 만나 트레이드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논의하는 연례 회동이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보그스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금은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중으로 연내 정식으로 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치로와 시애틀의 새 계약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50세까지 현역 선수로 뛰겠다고 수차례 말해온 이치로는 올해 3월 보장 연봉 75만 달러에 성적이 따라 최대 2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1년짜리 계약을 하고 6년 만에 시애틀로 복귀했다.

5월 초 이후에도 팀의 일정을 함께 하면서 훈련을 계속해왔다. /연합뉴스

남자핸드볼 남북 단일팀 세계선수권 대비 독일 훈련

2019년 1월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남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는 남북이 독일에서 곧바로 만나 훈련을 시작한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임원 3명과 선수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북측 선수단이 이날 말 독일에 도착해 남측 선수단과 합류, 세계선

수권을 대비한 훈련을 하기로 했다.

제26회 세계남자핸드볼 선수권대회는 2019년 1월 10일부터 27일까지 독일과 덴마크가 공동 개최한다.

남북은 지난달 체육분과회담을 통해 이 대회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다.

24개국이 출전하는 이 대회의 팀별 선수 수는 원래 16명이지만 국제

핸드볼연맹(IHF)은 남북 단일팀만 20명으로 이를 늘려줬다. 이에 따라 남측 선수 16명에 북측 선수 4명이 합류해 단일팀을 꾸리기로 했다.

남측 선수들은 16일까지 국내 리그 일정을 마치고 17일부터 충북 진천선수촌에 소집될 예정이다.

북측 선수들이 방남해 손발을 맞춰볼 계획이었으나 이번에는 곧바로 독일에서 훈련을 시작한다.

/연합뉴스